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1 로컬푸드 프로젝트(LFP)<sup>1)</sup>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부터 지역의 핵심적인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로컬푸드 프로젝트(LFP)’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로고 |



-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2개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미 18개 부현에서 JA와 식품업자 등이 참여한 농산물 가공품 만들기 등의 신사업에 착수하고 있음.
- 지역 사업자 소득 증가를 비롯해 경작 포기 농지 증가와 핵심 경영인 부족 등의 과제 해결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공식품 원료 국산화, 농림수산물 생산 촉과 식품 가공 등 실수요자 층의 불일치 (미스매치) 해소, 소비 행동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추진이 급선무임.
-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목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장래상을 고려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양립시킬 필요가 있음.

1) 일본 농림수산성 “地域に新たなビジネスモデルを生み出す~「ローカルフードプロジェクト (LFP)」がスタート~”(2021.10.2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press/shokuhin/seisaku/211021.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3988>).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 따라서 지역 내외의 다양한 사업자와 관계자가 협동하여 타 업종 등의 기술 및 지식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이노베이션 유발', 소비자 니즈나 소비 행동 변화에 대응한 '가치사슬과 공급망 구축'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함.
  - 지역 식품과 농업에 관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플랫폼 구축, 식품 관련 비즈니스 구축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양립한 상품 및 서비스 창출
  - 식품 가공업자, 식품 도소매업자, 외식·간편식 사업자, 관광사업자, 직판매장·수출(지역의) 상사, 금융기관, 식생활 교육, 지역 소비 코디네이터, 6차 산업화 플래너, 대학 등 연계
-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위한 지원 내용]** 농림 수산성은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추진 위탁사업'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 양립에 의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2021년 6월부터 도도부현 주최의 연수회나 전략회의에 LFP 코디네이터(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략 지원을 시행해 왔음.
  - 또한, 남은 하반기에는 비즈니스화를 위한 향한 직접 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테스트 마케팅 도입 지원 등을 실행할 것임.
- 로컬푸드 프로젝트(LFP)에서는 도도부현을 시행 주체로 지역의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을 사용한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농림수산성은 2021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프로젝트(LFP) 추진에 2억 2,200만 엔을 계상하여 시제품 제조 및 전문가 파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고 있음.
  - 이와테(岩手), 시즈오카(静岡), 토야마(富山), 교토(京都), 미야자키(宮崎) 등 18개 부현에서는 농가와 식품제조업, 지역 소매점 등 30~50개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검토회를 발족해 상품 제조 검토 및 판로확보 논의, 사업자 간 매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4개 지역도 2021년도 내에 사업 구체화를 목표로 함.
  - 토야마현에서는 JA 및 음식 등이 제휴하여 육아 세대의 여성을 타깃으로 현에서 생산한 복숭아를 사용한 디저트 만들기에 착수해 빠르면 올해 내에 상품화를 목표로 함. 야마구치현, 카가현에서도 JA 및 식품 사업자 등이 현지 농산품을 사용한 과자나 음식점의 메뉴 개발에 임하고 있음.
  - 사이타마(埼玉)현에서는 경작 포기 농지 및 핵심 경영인 부족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과 현지 농가 등을 중심으로 현에서 생산한 생강을 사용한 진저에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시즈오카현은 전문가 레시피를 기반으로 밀키트를 개발하여 식품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농림수산성은 일본의 전체 도도부현이 프로젝트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0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 2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sup>2)</sup>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10월 27일,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 하였음.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2050년까지 실질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3.5%를 감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함.
- 환경부하 경감 정책방침인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바탕으로 시설 원예와 농기계 에너지 절약 화, 이산화탄소 토양 저류, 논 메탄 배출 감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치 목표를 재검토하였음.
- 새롭게 수립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3.5%를 기준으로 2013~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약 4,953만 톤 CO<sub>2</sub>eq임.
  - **(원예)** 2030년도까지 히트 펌프, 목질 바이오매스 난방기 등의 에너지 절약 기기, 공기 순환팬·커튼 등 절전 설비 도입을 늘려 155만 톤 CO<sub>2</sub>eq 절감을 목표로 함.
  - **(토양 저류)** 배출 감축과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는 토양 저류도 추진함. 퇴비나 녹비 같은 유기물 외에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숯을 토양에 유입하여 2030년까지 850만 톤 CO<sub>2</sub>eq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기계)** 효율적인 자동차 조타장치 등을 탑재한 에너지 절약 농기계의 도입을 통해 7,900톤 CO<sub>2</sub>eq 절감을 목표로 함.
  - **(토양)**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104만 톤 CO<sub>2</sub>eq 감축을 목표로 중간낙수 기간 연장을 통해 토양 통기성을 높이는 관리법을 새롭게 보급하고, 화학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비료 사용을 줄여 24만 톤 CO<sub>2</sub>eq를 감축함.
  - **(산림)** 농림수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문은 산림 부문임. 산림흡수를 통해 약 3,800만 톤 CO<sub>2</sub>eq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80%임.
- 농림수산성은 각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기술이나 기기의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2)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地球温暖化対策計画”(2021.10.27.), 일본농업신문 “温室ガス排出削減 30年度 3.5%分を農業分野で 農水省が計画改定”(2021.10.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climate/taisaku/top.html>,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34562>).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소 현황 및 목표

구분	<2019년>	<2030년>
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 수	10만 9,000대	17만 대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수	21만 7,000곳	37만 6,000곳
에너지 절약 농기계 도입 수	9,100대	19만 대
논 중간낙수 기간 연장 보급률	-	30%
화학비료(질소) 수요량	39만 3,000톤(2017년도)	35만 8,000톤
토지·토양 탄소 흡수(이산화탄소)	176만 톤	850만 톤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디지털 전원(田園) 도시 국가 구상 실현회의 개최<sup>3)</sup>

-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 11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활성화를 논의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 회의를 진행하였음.
  - 지방에서 디지털 구현을 통해 도시와 차이를 줄여 도시의 활력과 지방의 여유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을 도모함.

#### <디지털 구현을 통해 해결이 기대되는 지방 활성화 과제>

- 도쿄권 전입 초과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여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젊은 층의 전입 초과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
- 도쿄권 전입 초과 배경에는 일자리·수입 및 교육·육아, 의료 기반 등 지방의 다양한 과제에서 기인 하며 이러한 과제 해결이 필요함.
  - (지방 주요 과제) △일자리 확보, △성장 산업 창출, △교통 및 물류 확보, △교육 기회 충실, △의료·복지 충실, △문화·오락 충실 등

3) 일본 내각관방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第1回)”(2021.11.1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denen/index.html](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denen/index.html)).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 사례

####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ICT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보'〉

-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생활 편리성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 아이즈와카마츠' 추진
- ICT를 활용한 오피스 'AiCT'를 정비하여 일본 국내외 37개 사에서 2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오кина와현 요나구니초 원격 쌍방향 라이브 수업을 통한 '교육 기회 내실화'〉

-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과 도쿄에 거주하는 대학생 강사 간 원격 쌍방 소통 수업 시행
- 지방에서 도시와 같은 수준의 학습환경이 정비되어 도입 후 3년간 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전 과목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의 효과 발생

#### 〈나가노현 이나시 의료 x MaaS에 의한 '의료 충실'〉

- 간호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갖춘 이동 진찰 차량에서 화상 통화를 활용하여 의사가 원격지에서 환자를 진찰
- 배차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경로로 환자 자택을 순회하며 환자, 의사 쌍방의 부담을 경감

### 〈향후 논점〉

- **[지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구현]** △지방 일자리 확보(지방창업 재택근무 등), △성장 산업 창출(지역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 스마트 농업 등), △교통·물류 확보(MaaS의 추진, 드론, 정보 코드 통일 등), △교육 기회 및 의료·복지 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내실화, △슈퍼시티 구상 조기 실현 등이 있음.
- **[디지털 인재 양성·확보]** △지역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인재 확보와 공조 커뮤니티 양성, △의욕이 있는 지방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인재 선순환 확립 등
- **[지방을 지탱하는 디지털 기반 정비]** △데이터 연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등 민관 협조형 디지털 기반 정비 가속화, △5G, 데이터센터, Wi-Fi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인프라 정비 가속화, △새로운 서비스 실현 및 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 개혁 실현, △첨단 서비스에 필요한 톨·지식 등 개발 및 지방 도입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실현]** △디지털 추진위원의 전국적인 추진, △이재민·고령자 등에 대한 디지털 활용 지원, △주민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공조 촉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2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 4 농림수산업성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 방침<sup>4)</sup>

-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을 결정하였음.
  - 수출 사업자 전용 새로운 자금을 창설하여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 등에 대응한 시설 정비나, 수출을 통해 이익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등의 자금 융통을 지원함.
  - 또한, 품목별로 생산에서 수출까지의 사업자를 묶은 ‘품목 단체’를 국가가 인증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를 민간에서도 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림수산업성은 2022년도 통상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방침임.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은 사업자가 수출하는 품목과 수출 대상 국가, 판매액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서를 국가가 인증하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보조사업에서 우선 채택 받을 수 있음.
  -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에 새롭게 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새롭게 신설하는 자금으로 지원함.
- 새로운 자금은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용자하며, 수출 사업자에게 필요한 위기 분석 중점 관리 제도(HACCP)나 이슬람교도 전용 할랄 대응 시설, 지방 항만·공항에서의 콜드 체인(저온 유통) 설비 투자를 지원함.
- 그 외 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 등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의 대응 경비나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운용 자금으로 충당됨.
- 품목별로 사업자를 묶은 ‘품목 단체’를 인증하는 구조도 설치하고자 함. 인증을 받은 단체는 수출 대상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나 판매 촉진 등의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기 용이하도록 하고, 인증 요건 등은 향후 마련해갈 방침임.
- 현재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수출 시에 필요한 위생 증명서 등의 발행은 국가 및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나, 민간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 검사기관을 국가가 인증하는 구조로 구축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 확대를 통해 수출 절차 원활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4) 일본농업신문 “輸出促進法改正へ 事業者向け資金創設 品目団体を認定 農水省方針”(2021.11.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news/index/40309>).



##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일본

## |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법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수출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자금 창설	HACCP 및 할랄 대응 시설 등 설비 투자, 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대응 비용 지원
품목 단체 법제화	생산부터 수출까지 사업자를 묶은 품목 단체를 국가가 인증하여 해외에서 시장조사 등을 지원
수출 증명서 발행 절차 원활화	국가 및 도도부현만 시행했던 위생 증명서 등의 발행을 민간 검사기관도 담당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